

## 人蔘養胃湯에 관한 文獻的 考察

俞熙正<sup>\*</sup>·李正泰<sup>\*\*</sup>·尹暢烈<sup>\*</sup>

### 關於人蔘養胃湯的文獻研究

俞熙正<sup>\*</sup>·李正泰<sup>\*\*</sup>·尹暢烈<sup>\*</sup>

<sup>\*</sup>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sup>\*\*</sup>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關於人蔘養胃湯, 通過對十多種主要文獻進行考察研究, 最後得出如下結果.

人蔘養胃湯首載於「和劑局方」, 主治外感風寒·內傷生冷·憎寒壯熱·頭目昏疼·肢體拘急, 且不問風寒二證及內外之殊. 藥物由半夏·厚朴·蒼朮·橘紅·藿香葉·草果·茯苓·人蔘·炙甘草·生薑·烏梅組成. 在十多種文獻中, 「醫學入門」·「萬病回春」·「赤水玄珠」·「證治準繩」·「玉機微義」·「沈氏尊生方」·「醫方集解」·「東醫寶鑑」·「方藥合編」等文獻對人蔘養胃湯的主治病證及藥物構成等內容的論述, 與「和劑局方」同出一轍, 并有所發展和變化. 「萬病回春」·「玉機微義」·「陳素庵婦科補解」·「松崖醫徑」·「攝生衆妙方」·「胎產秘書」等認為其可治瘧疾, 「證治準繩幼科」·「痘疹金鏡錄」·「赤水玄珠」等則認為可治療內傷, 可見後世主治病證更加豐富.

在「普濟方」·「陳素庵婦科補解」·「準繩幼科」·「醫略六書」中, 人蔘養胃湯的藥物與「和劑局方」相差甚遠, 故當與「和劑局方」的人蔘養胃湯無關.

綜合諸文獻, 可知人蔘養胃湯屬治因內傷而出現外感病的處方, 可治傷寒陰證及與傷寒類似的症狀, 但與具有溫中解表作用的人蔘敗毒散或蔘蘇飲的發汗治法大不相同. 人蔘養胃湯在現代中醫臨床上, 可對現代人因飲食生活的變化和飲食不節造成的內濕及痰飲病證有廣範的應用前景, 對因外感傷寒而長期過度使用抗生素等的患者, 亦當有較好療效.

## I. 緒 論

人蔘養胃湯은 宋代의 陳承·陳師文·裴宗元 등이 編纂한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처음으로 由來되는 處方으로서 蒼朮, 陳皮, 厚朴, 半夏, 茯苓, 藿香, 人蔘, 草果, 甘草, 生薑, 大棗, 烏梅 등 藥物로 構成되었고, 主治病證으로서는 傷寒陰證, 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人蔘養胃湯은 이후의 「普濟方」·「萬病回春」·「赤水玄珠」·「王肯堂醫學全書」·「醫方集解」·「東醫寶鑑」등 醫書들에서도 相關된 내용이 보이는데, 藥物의 構成에 있어서는 「太平惠民和劑局方」의 내용을 一脈相承한 것도 있지만

서로 크게 差異를 보이는 部分도 있으며, 臨床主治病症에 있어서는 治療의 範疇가 많이 擴大되거나 서로 많이 差異나는 部分도 보이고 있다.

· 最近의 臨床을 보면 食事의 不規則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傷寒陰證에 屬하는 病症들이 많이 보이는 편이고, 또한 食慾의 旺盛으로 過食하여 病이 發生하거나 感氣에 抗生劑 등을 오랫동안 服用하여 內傷이 생기는 어린 患者들이 많이 보이는 實情이다. 具體的으로는 胃腸性感氣, 急慢性胃腸炎, 夏節食傷, 瘧疾, 장티프스, 食滯, 腹痛, 胃痙攣, 속 쓰림, 食慾不振, 泄瀉, 疲勞, 感氣, 가래, 기침, 惡寒 등과 같은 病症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人蔘養胃湯을 適切하게 加減하여 活用하면 比較的 좋은 治療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現時代의 韓方臨床에서 人蔘養胃湯을 많이 活用할 수 있는 價値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 교신저자 윤창열, yooncy@dju.ac.kr  
· 채택일 : 2005년 11월 30일

『太平惠民和劑局方』을 비롯하여 以後의 여러 醫書 中에서 發展되고 變化된 모습으로 나타난 人蔘養胃湯의 藥物構成과 主治病症 등에 대한 仔細하고 體系的인 文獻研究와 整理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實情이다.

이에 著者는 『太平惠民和劑局方』을 出發點으로 하여 以後의 『普濟方』·『萬病回春』·『赤水玄珠』·『王肯堂醫學全書』·『醫方集解』·『東醫寶鑑』등 십여 種의 醫書 中에 나타난 人蔘養胃湯의 諸般 內容에 대하여 文獻的 考察을 하였는데,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論 및 考察

### 1.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論한 人蔘養胃湯

『太平惠民和劑局方』은 통상 『和劑局方』이라고 부르는데 宋代 “官藥所”의 賣藥處方의 指針書로 現代의 “藥局方”과 같은 冊이다. 이 책은 大觀中(1107~1110年)에 陳承·陳師文·裴宗元 등이 宋·神宗의 命을 받아 과거의 藥局方을 補充하고 校正하여 『校正太平惠民和劑局方』五卷을 編성한 것을, 嘉定元年(1208年)에 이르러 許洪이 다시 校正과 注釋을 가하였고, 이후에 또 寶慶(1225~1227)과 淳祐(1241~1252)年間의 增補를 거쳐 최후에 14門 788方으로 確定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1)</sup>. 『和劑局方』의 處方은 簡明하면서도 實用性이 있어서 一般的으로 많이 利用하고 後世의 醫藥書에서도 『和劑局方』의 處方을 많이 引用하고 있다.

本 論文에서 研究하고자 하는 人蔘養胃湯이 바로 이 『和劑局方』에서 最初로 나타나고 있는데, 原文을 中心으로 關聯된 內容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和劑局方』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外感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目昏疼 肢體拘急” 등의 病證을 “不問風寒二證, 及內外之殊, 均可治療.” 한다고 處方의 主治病症들을 밝혀주었고, 다시 “半

夏湯洗七次, 厚朴去粗皮 薑汁炒, 蒼朮米泔浸一宿 洗切 炒 各一兩, 橘紅七錢半, 藿香葉洗去土, 草果去皮膜, 茯苓去黑皮, 人蔘去蘆 各半兩, 炙甘草二錢半. 右爲咬咀, 每服四錢, 水一盞半, 薑七片, 烏梅一個, 煎至六分, 去滓, 熱服之.”라고 하여 處方의 藥物構成과 調劑 및 服用方法 등에 관하여 仔細하게 論하였다. 즉 人蔘養胃湯의 藥物의 構成과 用量이 半夏1兩, 厚朴1兩, 蒼朮1兩, 橘紅七錢半, 藿香葉半兩, 草果半兩, 茯苓半兩, 人蔘半兩, 炙甘草二錢半, 生薑七片, 烏梅一個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人蔘養胃湯의 原始的 處方으로서 총 13種의 藥物로 이루어졌고, 藥物의 總用量이 한 貼당 6兩에다 生薑七片 烏梅一個를 追加하는 것이다.

人蔘養胃湯의 服用은 『和劑局方』에서 “熱服之”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는데 구체적인 要求事項과 方法에 대해서는 다시 患者가 땀이 없음과 있음을 基準으로 삼아 無汗의 경우에는 “先用厚枝蓋睡, 連進此數, 服以薄糊湯之類佐之, 令四肢微汗濺濺, 然俟汗乾, 卽徐徐去被, 謹避外風, 自然解散.” 한다고 하여 이불을 덮고 湯藥을 服用한 후에 다시 따뜻한 미음을 먹어 四肢로 하여금 땀이 촉촉하게 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本來 땀이 있는 患者의 경우에도 “亦須溫潤, 以和解之.” 한다고 하여 溫服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그 외에 人蔘養胃湯으로 위의 主治病症들을 治療한 후에 아직도 이런 저런 些少한 症狀들이 남아 있는 경우의 治療에 대하여 “或有餘熱, 以蔘蘇飲疑調之, 或常頭疼則, 浸煎生薑葱白湯下聖餅子. 三證既除, 不必服藥, 但節其飲食, 適其寒溫, 自然平治.” 한다고 하여 人蔘養胃湯을 이어서 使用할 處方인 蔘蘇飲, 生薑葱白湯下聖餅子 등을 提示해 주고 있다.

그리고 人蔘養胃湯의 處方의 藥理特性에 대하여 “大抵感冒古人, 不敢輕發汗者, 止由麻黃能開溱理用, 或不能得宜則導泄眞氣, 因而致虛變生他證. 此藥乃平和之劑, 上能溫中解表而已, 不致忘擾也, 兼能辟山嵐瘴氣四時瘟疫, 常服尤佳.”라고 하여 麻黃은 藥性이 強烈하여 잘못 使用하면 其他 病證이 派生될 수 있지만 이 處方은 平和로운 藥劑로서 副作用이 없는 長點이 있고, 兼하여 “山嵐瘴氣四

1) 洪元植 尹暢烈, 新編中國醫學史, 大田, 周珉出版社, 2004, pp. 172~173.

時瘟疫”을 물리칠 수 있기에 자주 服用하면 더욱 좋다고 評價하였다.

마지막으로 人蔘養胃湯은 위에서 말한 主治病證 외에도 “飲食傷脾, 發爲痲瘧. 或脾胃中脘虛寒, 嘔逆惡心”등 病症에 좋은 治療效果가 있으며, “或發寒瘧, 寒疫及惡寒者”에 대해서는 이 處方에다 附子를 加味하여 治療하는데 그렇게 藥物이 10 味로 늘어나서 이를 이름하여 “不換金散”이라고 부른다고 추가 說明하였다.

이와 같이 人蔘養胃湯은 傷寒陰症과 外感風寒하고 內傷生冷하여 憎寒壯熱·頭痛身疼한 것을 治療하는 主處方으로, 構成藥物은 蒼朮, 厚朴, 半夏 各一兩, 茯苓, 藿香葉, 人蔘, 草果仁 各半兩, 炙甘草 二錢半, 橘紅 七錢半이며, 服用方法은 이상의 藥物을 거칠게 갈아 每回 四錢을 生薑 七片, 烏梅 一個와 함께 달여 뜨거울 때 服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sup>. 이는 일체의 痰飲을 治療하는 二陳湯과 脾胃不和로 인한 中焦의 飲食停滯를 다스리는 平胃散과 白朮이 蒼朮로 바뀐 四君子湯의 合方이다. 이는 人蔘養胃湯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주로 脾胃에 관한 藥物들이 주로 構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醫學入門』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2)</sup>

1) 劉景源 點校,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p. 68~69. 人蔘養胃湯 治外感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目昏疼 肢體拘急 不問風寒二證 及內外之殊 均可治療 先用厚枝蓋睡 連進此數服 以薄糊湯之類佐之 令四肢微汗濺濺 然俟汗乾 卽徐徐去被 謹避外風 自然解散 若元有汗 亦須溫潤 以和解之 或有餘熱 以蔘蘇飲 疑疑調之 或常頭疼則 浸煎生薑葱白湯下 聖餅子 三證既除 不必服藥 但節其飲食 適其寒溫 自然平治 大抵感冒古人 不敢輕發汗者 止由麻黃 能開溱理用 或不能得宜 則導泄眞氣 因而致虛 變生他證 此藥乃平和之劑 上能溫中解表而已 不治忘擾也 兼能辟山嵐瘴氣 四時瘟疫 常服尤佳 半夏湯洗七次 厚朴去粗皮, 薑汁炒 蒼朮米泔浸一宿, 洗切, 炒 各一兩 橘紅七錢半 藿香葉洗去土 草果去皮膜 茯苓去黑皮 人蔘去蘆 各半兩 炙甘草二錢半. 右爲咬咀. 每服四錢, 水一盞半, 薑七片, 烏梅一個, 煎至六分, 去滓, 熱服之. 兼治飲食傷脾, 發爲痲瘧. 或脾胃中脘虛寒, 嘔逆惡心, 皆可化之, 或發寒瘧, 寒疫及惡寒者, 並加附子, 是爲十味不換金散.

2) 李挺, 『新校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成文化社, 1994, p. 27, 79.

『醫學入門·類傷寒門』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만약 內傷脾胃하고 外感寒邪한 者는 藿香正氣散이나 人蔘養胃湯으로 治療한다.”고 하여 그 主治病證에 대하여 分明히 內로는 脾胃를 傷하였고 外로는 寒邪의 侵入을 받은 病症이라고 밝혀 주고 있다.

다시 그 藥物構成에 대해서는 “蒼朮一錢, 陳皮·厚朴·半夏 各七分半, 茯苓·藿香各五分, 甘草二分, 烏梅一箇, 人蔘·草菓各四分, 薑三片, 棗二枚”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橘紅이 陳皮로 變更된 것과 大棗 추가된 것 말고는 『和劑局方』의 藥物構成과 完全히 一致한 것이다. 服用方法에 대해서는 “煎熱服하여 取汗하는데 有汗하면 溫服한다.”고 하여 無汗과 有汗을 判斷基準으로 삼아 熱服하거나 溫服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나아가서 人蔘養胃湯의 具體的인 臨床活用과 辨證에 따른 藥物加味등 문제에 대하여 論하였는데, 즉 “外感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目昏疼, 肢體拘急”의 病症을 治療함에 있어서는 風寒二證과 夾食停痰을 不問하고 모두 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兼하여 “飲食傷脾, 或外感風寒濕氣, 發爲痲瘧 及山嵐瘴疫”을 治療할 수 있는데 效果가 유달리 神妙하다고 하였으며, 虛寒이 보이는 경우에는 附子和 肉桂를 加味하여 治療한다고 하였다.

## 3. 『普濟方』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3)</sup>

『普濟方』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治虛損血衰, 手足軟, 行步無力, 口苦舌乾, 并宜服之.”라고 하여 主治病證의 內容에 外感風寒이 없어지고 內傷病證이 보다 強調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藥物의 構成과 用量에 관하여 “人蔘三錢, 茯苓去皮四錢, 北五味子五錢, 黃耆三錢, 白扁豆三錢, 遠志三錢, 石蓮肉去皮五錢, 生地黄五錢, 益智仁三錢, 川當歸三錢半, 川芎二錢半, 麥門冬去心三錢, 甘草二錢, 大棗 六枚.”라고 하여 茯苓, 人蔘, 炙甘草 세 가지만 『和劑局方』과 같은데 用量도 差異가 보이고, 나머지 北五味子, 黃耆, 白扁

3) 朱橚·滕碩·劉醇, 『普濟方』, 서울, 醫聖堂, 1993, pp. 3377~3378.

豆, 遠志, 石蓮肉, 生地黄, 益智仁, 川當歸, 川芎, 麥門冬, 大棗 등 열한 가지 藥物은 『和劑局方』과는 完全히 다른 부분이다.

다시 『普濟方』에서는 위의 人蔘養胃湯의 服用方法에 관하여 “右爲剉, 分作六服. 每服用水二鍾, 大棗一枚, 煎至八分, 去滓, 食前服. 滓再煎服, 無忌.”라고 하여 위의 약들을 함께 갈아서 만든 가루약을 大棗와 함께 달여서 食前에 服用하 라고 하였고 禁忌事項도 없다고 하였다.

#### 4. 『萬病回春』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1)</sup>

『萬病回春』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初起의 寒瘧을 治療하는데 使用하는 處方이라고 하였는데, 具體적인 治療過程에 있어서는 우선 人蔘養胃湯을 二帖 投與하고 然後에 다시 人蔘養胃湯을 加減하여 投與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萬病回春』이 人蔘養胃湯의 臨床主治病證이 寒瘧初起에 主眼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人蔘養胃湯의 藥物構成에 관하여 “人蔘, 茯苓去皮, 陳皮, 半夏薑汁炒, 厚朴薑汁炒, 烏梅一箇, 蒼朮米泔浸, 藿香, 當歸, 川芎, 草果去殼各一分 甘草三分, 右剉一劑 生薑三片 大棗一枚.”라고 하였는데, 『和劑局方』과 比較했을 때 橘紅을 陳皮로 交替하고 當歸, 川芎, 大棗를 더 追加한 處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處方 중 각 藥物의 用量도 『和劑局方』의 用量보다 훨씬 微弱하게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藥物의 服用方法에 관하여서도 “水煎溫服”이라고 하여 『和劑局方』과 같이 가루를 내어서 生薑과 烏梅를 함께 달인 물을 먹는다는 것보다 簡略하게 言及하고 있다.

그 외에 『萬病回春』에서는 人蔘養胃湯을 臨床의 多樣한 症狀의 有無에 따라 加減應用하는 問題에 대하여 “寒多加官桂, 熱多加柴胡, 汗多去蒼朮·藿香·川芎 加白朮·黃芪, 飽悶加青皮·砂仁 去人蔘, 渴加麥門冬·知母 去半夏, 瀉加炒白朮·芍藥, 瀉不止加肉苁蓉 去厚朴·炒果, 嘔噦加白朮·山藥·炒砂仁·炒

米 去草果·厚朴·蒼朮, 痰多加貝母·竹瀝 去半夏·草果, 內熱盛加炒黃芩 去半夏, 長夏暑熱盛 加香薷·扁豆 去半夏·藿香.”한다고 매우 詳細하게 論함으로써 實際 臨床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5. 『赤水玄珠』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2)</sup>

『赤水玄珠』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治外感寒邪, 內傷生冷.”이라고 그 主治病證을 한마디로 要約하고 있어 『和劑局方』의 脈을 그대로 繼承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藥物의 構成에 관하여 “蒼朮·厚朴·半夏麩 各二錢, 人蔘·茯苓·草果·藿香, 各一錢, 陳皮 一錢二分, 甘草炙五分, 薑三片, 烏梅半個.”라고 하여 陳皮로서 橘紅을 대체한 것 말고는 『和劑局方』과 一致하나 藥物의 用量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藥物의 服用方法에 관하여서는 단지 “水煎服”한다고 하여 『和劑局方』보다 說明이 簡略함을 알 수가 있다.

그 외에 人蔘養胃湯의 臨床加減活用 問題에 관하여 “飲食傷脾及寒多熱少者”와 “胸膈痞悶, 不思飲食.”의 病證을 治療하되 만약 寒多한 者에게는 生薑과 肉桂를 加味하여 使用하고 熱多한 者에게는 黃芩과 黃連 그리고 柴胡를 加味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 6. 『證治準繩』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3)4)</sup>

『證治準繩·傷寒』에서는 人蔘養胃湯을 養胃湯이라고 略稱하였고, 主治病證과 藥物構成에 관하여서는 “治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目昏疼, 不問風寒二證, 挾食停痰, 俱能治之, 但感風邪, 以微汗爲好. 半夏湯洗七次, 厚朴去粗皮 薑汁炒, 蒼朮米泔浸一宿 洗切炒 各一兩, 橘紅七錢半, 藿香葉洗去土 草果去皮膜 茯苓去黑皮 人蔘去蘆 各半兩, 炙甘草

1) 襲廷賢, 『增補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2, p. 130.

2) 孫一奎,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p. 102, 326.

3) 王肯堂, 『證治準繩』第3卷,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77.

4) 王肯堂, 『證治準繩』第5卷,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 404.

二錢半. 上咬咀, 每服四錢. 水一盞半, 薑七片, 烏梅一個, 煎六分, 熱服. 兼治飲食傷脾, 發爲痰癆. 寒多者, 加附子爲十味, 名不換金散.”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和劑局方』의 내용을 그대로 收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證治準繩·幼科』에도 「不能食門」에 人蔘養胃湯이 보이는데, 具體的으로는 “人蔘養胃湯, 白朮·陳皮·神曲 各一錢五分, 人蔘·茯苓·梔子·黃芩 各一錢, 甘草八分. 上銼散, 分爲二服. 水煎, 不拘時服. 補脾進食之劑.”라고 하여 脾臟을 補하여 食慾을 增強하는 效能이 있다고는 하지만 茯苓·人蔘·炙甘草만 『和劑局方』과 같을 뿐 그 외의 構成 藥物인 白朮·神曲·梔子·黃芩·陳皮는 모두 相異한 藥材들이기에 處方 構成의 差異가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玉機微義』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1)</sup>

『玉機微義』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外感風寒, 內傷生冷, 四時瘟疫, 或飲食傷脾, 發爲痰癆.” 등 病證을 主治하는 處方이라고 하면서 『和劑局方』에서 由來된 것으로 平胃散에 人蔘, 茯苓, 半夏, 草果, 藿香, 生薑, 烏梅 등을 加味하여 달여 먹는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다시 處方에 대한 著者の 主張을 펼치면서 “此平胃散加減法也, 出太陰厚朴例. 已上諸方, 悉是溫脾燥熱之藥, 蓋認此疾爲脾寒故也. 然人用之, 亦或有效, 遂指爲治瘧之良方. 殊不知偶值病者陰陽相并, 脾氣鬱結, 暫得溫散, 則氣易行, 濁液凝痰, 中脘閉塞, 因得燥熱, 亦以暫開, 所以氣通而疾止. 內經所爲勇者氣行則已是也. 此古人爲病氣淺而質厚者設也. 若中氣虛弱之人, 內有鬱火之證, 復用燥熱, 愈劫愈虛, 咎將誰執?”라고 하였는데, 즉 말하자면 人蔘養胃湯의 藥理特性이 燥熱溫脾하는 것으로서 “病氣淺而質厚”하면서 脾寒이 있는 患者에게는 適切한 處方이지만, 만약 “中氣虛弱之人, 內有鬱火之證”인 경우에 사용한다면 脾胃의 氣를 더욱 損傷시켜 심한 脾氣의 虛弱을 招來할 수 있다고 警戒하였다.

1) 劉純, 『玉機微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12.

### 8. 『沈氏尊生書』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2)</sup>

『沈氏尊生書』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痰飲證의 治療에 應用한다고 하였는데, 處方의 構成을 살펴보면 “蒼朮錢半, 陳皮·厚朴·半夏 各錢二分半, 茯苓·藿香 各一錢, 人蔘·炙甘草·草果 各五分, 薑三, 棗二, 烏梅一.”이라고 하여 『和劑局方』의 藥物構成과 比較했을 때 陳皮로 橘紅을 대체한 것과 大棗를 追加한 것 외에는 서로 一致한 것이다. 藥物의 使用量에 있어서는 『和劑局方』의 人蔘養胃湯보다 많이 減少된 것으로 나타났고, 藥物의 服用方法에 있어서는 『和劑局方』과 달리 藥物 전체를 함께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고 하였고, 藥을 먹은 뒤에 약간 땀이 나야 病이 낫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餘熱이 남아 있으면 蔘蘇飲으로 調理한다고 하였고, 이 處方으로 兼하여 “傷寒陰證, 及外感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 등 病證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結果 『沈氏尊生書』의 內容은 大體的으로 『和劑局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 9. 『醫方集解』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3)</sup>

『醫方集解』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不換金正氣散에 다시 人蔘, 茯苓, 草果, 生薑, 烏梅를 加味한 것이 바로 人蔘養胃湯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主治病證에 관하여서는 外로는 風寒에 感하고 內로는 生冷에 傷하여 食을 挾하고 痰이 停함과 嵐瘴 瘟疫 或은 飲食이 脾를 傷하여 發하는 痰癆(老瘧)을 治療하는 效果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이는 『和劑局方』에서 論한 人蔘養胃湯의 範疇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繼承해 온 內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田思勝 主編, 『沈氏尊生書』, 北京, 中國中醫學出版社, 1999, p. 250.

3) 王昂 原著, 蔡仁植·孟華燮 共譯,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92, p. 526.

## 10. 『東醫寶鑑』에서 論한 人蔘養胃湯

『東醫寶鑑』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寒門」·「內傷門」·「瘡疾門」 등 部分에서 「和劑局方」·「醫學入門」·「得效方」·「醫鑑」 등의 內容을 參照하여 보다 綜合的으로 整理해 주고 있다.

첫째로 傷寒陰證<sup>1)</sup>에 人蔘養胃湯으로 治療한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무릇 傷寒病에 있어서 四肢厥冷·吐利不渴·靜躁의 症狀이 보이면 이는 陰證之常에 屬한다.”고 하면서 이때에는 “人蔘養胃湯, 陰旦湯, 藿香正氣散, 不換金正氣散”으로 治療하는 것이 適合하다고 하였다. 만약 診脈함에 重按無力하거나 無脈하면 伏陰證에 屬하므로 急히 五積散에 附子를 加하여 治療해야 하고, 만약 脈이 有力하면 이는 陽證에 屬하므로 人蔘養胃湯의 主治 病證에 屬하지 않으니 잘 살펴 區分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둘째로 “傷寒陰證, 及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에 人蔘養胃湯으로 治療한다고 다시 強調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蒼朮一錢半, 陳皮·厚朴·半夏 製 各一錢二分半, 茯苓·藿香 各一錢, 人蔘·草果·甘草 各五分, 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烏梅一箇, 水煎服.”한다고 설명하였는데, 處方の 藥物構成은 橘紅을 陳皮로 代替한 것과 大棗를 追加한 것 外에는 「和劑局方」과 모두 一致함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藥物의 用量은 「和劑局方」보다 다소 減少되어 藥을 가볍게 쓸 것을 主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服用 후에는 “令微汗濺濺然”하도록 하여 一定한 發汗이 꼭 必要하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sup>2)</sup>.

셋째로 感寒 및 四時傷寒<sup>3)</sup>에 人蔘養胃湯으로 治療한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寒溫不節 將理失宜 乍煖脫衣 甚熱飲冷 坐臥當風 居處暴露 衝冒霜雪 凌晨朝起 呼吸冷氣 久晴暴煖 忽變陰寒 久雨積寒 致生陰濕”

등에 의한 外部의 寒邪가 侵傷肌膚하고 入于腠理 하면서 “身體沈重 肢節痠疼 項背拘急 頭目不清 鼻塞聲重 淚出氣壅 胸膈凝滯 飲食不入” 등 症狀이 나타나게 된 경우에 만약 寒冷한 邪氣를 바로 풀어 없애지 않으면 곧 經絡속에 伏留하게 되어 他經으로 傳變해 나가기를 그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또 通常的으로 感氣에 表證이 보이면 마땅히 羌活沖和湯, 防風沖和湯, 芎芷香蘇散으로 治療해야 하고, 寒毒入裏하여 吐利가 보이는 경우에는 藿香正氣散으로 治療해야 하며, 挾食停痰한 경우에는 人蔘養胃湯으로 治療해야 한다. 그리고 傷寒陰證과 時令感冒에는 升麻葛根湯으로 治療하는 것도 좋다고 하였다.

넷째로 辨內外傷證<sup>4)</sup>해야 한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或外感挾內傷, 內傷挾外感, 或食積類傷寒”에 대하여 마땅히 分明하게 辨證한 然後에 治療를 施行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만약 內證이 더 많이 보이는 者는 內傷이 重하고 外感이 輕한 경우에 屬하니 마땅히 補養하는 것을 爲先으로 해야 하는데, 處方으로는 陶氏補中益氣湯이나 十味和解放 또는 加味益氣湯이 適合하며, 만약 外證이 더 많이 보이는 者는 外感이 重하고 內傷이 輕한 경우에 屬하니 마땅히 發散시키는 것을 急先務로 해야 하는데, 處方으로는 九味羌活湯이나 人蔘養胃湯 또는 參蘇飲이 適合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에서는 適切하게 人蔘養胃湯을 活用하기 위해서는 우선 內傷과 外感을 잘 分別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다섯째로 寒瘧<sup>5)</sup>에 人蔘養胃湯으로 治療한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自感寒으로 而得하여 寒多熱少한 病症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人蔘養胃湯이나 交解飲·果附湯·草果飲·柴胡桂薑湯으로 治療해야 한다.”하였으며, 나아가서 이러한 病症을 一名 牝瘧이라고 稱한다고 하였다.

또한 人蔘養胃湯으로 “傷寒陰證, 及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 등 病症을 治療할 수

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 106~107.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107.

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141.

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194.

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357, 361.

있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藥物構成과 服用方法에 관하여서는 『醫學入門』의 內容에 따라 “蒼朮一錢半, 陳皮·厚朴·半夏製 各一錢二分半, 茯苓·藿香 各一錢, 人蔘·草果·甘草炙 各五分, 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烏梅一箇, 水煎服.”한다고 하여 『醫學入門』의 內容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醫鑑』의 말을 引用하여 久瘧으로 三五日に 一發하는 患者에 대하여서는 露蓐養胃湯으로 治療할 수 있다고 提示하였는데, 여기서 露蓐養胃湯이란 즉 “先以生薑四兩搗, 取自然汁 露一宿, 次早將人蔘養胃湯一貼, 入棗二梅一, 同煎去滓, 和薑汁, 空心溫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補充說明하였다.

여섯째 寒熱似瘧<sup>1)</sup>에 人蔘養胃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入門』의 말을 引用하여 “感冒之人이 忽覺毛寒股慄하고 百骸鼓撼하며 嘔不能食하고 末幾轉而發熱하게 되어 諸症이 마치 瘧證과 흡사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不必脈弦하고 但隨證施治하면 되는데, 만약 熱多하면 小柴胡湯으로 治療하고 만약 寒多하면 人蔘養胃湯으로 和解하며 만약 內傷으로 虛하면 補中益氣湯에 山查·麥芽·白荳蔻를 加하여 脾臟을 바로잡아주면 곧 병이 멎는다.”고 하였다.

또한 『得效』의 말을 引用하여 諸虐을 治療하는데 加減清脾湯을 使用한다고 하였는데, 加減清脾湯이란 곧 小柴胡湯과 人蔘養胃湯을 合方한 것으로서 만약 寒多熱少한 경우에는 人蔘養胃湯을 많은 比例로 投與하고, 만약 熱多寒少한 경우에는 小柴胡湯을 많은 比例로 投與하며, 만약 寒熱의 勢力이 均等하면 똑같은 量으로 하여 投與한다. 每貼에 薑五·棗二를 넣고, 桃枝와 柳枝를 各三寸씩 끊어 넣어서 水煎하여 空心에 服用한다.”고 하였다.

위의 條文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感寒及四時傷寒」에서는 挾食停痰에 人蔘養胃湯을 쓴다고 하였으나, 「辨內外傷證」에서는 外證이 많은 경우는 外感이 많고 內傷이 적은 것이므로 人蔘養胃湯을 쓴다고 하였다. 이는 條文만 본다면 相

衝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辨內外傷證」이 「內傷門」에서 나온 이상 「辨內外傷證」에서 언급한 處方 중에서 外感症狀이 좀 더 나타난다는 것이지 內傷이 가볍거나 輕微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東醫寶鑑』全體에서 나온 人蔘養胃湯의 條文으로 볼 때 「寒門」과 「內傷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由來한 主治病證<sup>2)</sup>으로 볼 때 當然하다 하겠다. 瘧疾門에서 나오는 것은 瘧疾의 主症狀인 寒熱往來만을 생각하면 의외라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瘧疾의 原因을 본다면 『東醫寶鑑·瘧疾門』에 “『內經』에 ‘여름에 더위에 傷하면 가을에 瘧疾이 된다.’고 하였다. 여름 더위에 汗을 내지 않으면 가을에 風瘧이 된다. 風氣가 皮膚속에서 盛하여 안으로도 通하지 않고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는데, 腠理가 열리면 으스스 추워하고 닫히면 熱이 나고 답답한 것을 寒熱이라 한다. 여름에 더위에 傷하면 旺盛한 熱氣가 皮膚와 腸胃에 숨어 있다가 가을이 되어 바람을 쏘이거나 沐浴을 하여 水氣가 皮膚속에 들어와 衛氣와 함께 머문다. 衛氣는 낮에는 陽分을 다니고 밤에는 陰分을 다니니 이 氣가 陽分을 다니면 겉으로 나오고, 陰分을 다니면 안으로 들어가 안팎으로 부딪쳐 날마다 發作하는 것이다.”<sup>3)</sup>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治法으로는 “『內經』에서는 暑邪와 風邪를 瘧疾의 주된 原因으로 보았고, 『和劑局方』에는 飲食이 傷한 것을 주된 原因으로 보았으며, 丹溪는 痰을 주된 原因으로 보았으나 이 세 가지 原因이 복잡하게 얽혀 氣血을 混亂시켜

2) “治傷寒陰症, 及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

3)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p. 1359.

『內經』(生氣通天論篇 第三)曰 夏傷於暑 秋爲瘧瘧. 夏暑 汗不出者 秋成風瘧(內經 金匱眞言論篇 第四). 風氣盛於皮膚之內 內不得通外不得泄 腠理開則洒然 寒閉則熱而悶 名曰寒熱(內經 風論篇 第四十二) 夏傷於暑 秋必病瘧 蓋傷之淺者 近而暴 傷之重者 遠而深. 瘧瘧者 久瘧也. 是知夏傷於暑濕熱 閉藏而不能發泄于外 邪氣內行至秋而發爲瘧也(保命). 夏傷於暑 熱氣盛藏於皮膚之內 腸胃之外 因秋遇寒及得之 以浴水氣舍於皮膚之內 與衛氣 并居衛氣者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此氣得陽 而外出得陰 而內薄 內外相薄 是以日作(內經 瘧論篇 第三).

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363 ~364.

서 생긴다. 그렇지만 빨리 낮게 하려면 暑邪를 몰아내고 痰을 삭히는 것이 重要하다. 이런 데는 二陳湯을 두루 쓰는데, 땀이 나지 않으면 葛根과 柴胡를 넣어 쓰고, 惡寒이 심하면 草果를 넣어 쓰며, 渴症이 있으면 烏梅를 넣어 쓴다.”<sup>1)</sup>고 하였다. 瘧疾의 原因이 外感邪氣인 暑邪와 風邪, 食傷, 痰과 治療에 相應되는 藥物인 二陳湯과 草果, 烏梅 등으로부터 볼 때 人蔘養胃湯의 處方構成이 痰飲의 代表方인 二陳湯과 脾胃不和의 治療藥인 平胃散으로 構成되어 있고, 草果와 烏梅가 處方에 있는 人蔘養胃湯이 瘧疾에 쓰이는 것도 當然하다 하겠다. 『東醫寶鑑』에 나온 人蔘養胃湯의 條文 중에 「感寒及四時傷寒」의 “대체로 옛사람들이 경솔히 땀을 내지 않게 한 것은 바로 麻黃이 腠理를 열어주는데, 이것을 적당히 쓰지 못하면 眞氣를 消耗시켜 虛해져서 다른 證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藥(人蔘養胃湯이다)은 性質이 平順한 藥이므로 능히 속을 덥히며 表證을 풀리게 할 따름이고, 함부로 發散 시키지 않는다.”<sup>2)</sup>라는 條文이 蔘蘇飲이나 人蔘敗毒散은 發汗으로, 升麻葛根湯은 解肌로 治療를 하고, 外感傷寒 處方중에 人蔘養胃湯은 特異하게 內傷으로 因하여 外感이 나타나는 경우에 效果를 보는 處方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 것에 根據가 되는 條文이다.

### 11. 『東醫臨床方劑學』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3)</sup>

『東醫臨床方劑學』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醫學入門』의 內容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臨

1)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pp. 1374~1375. 瘧疾治法 “『內經』主於暑風 局方主於傷食 丹溪主於痰 雖三因雜至 錯亂氣血 然捷徑 以祛暑消痰爲要 通用二陳湯 無汗加葛根 柴胡, 氣虛 加參朮, 熱甚 加芩連, 寒多 加草果, 口渴 加烏梅(入門).”

2)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pp. 1064~1065. “大抵 感冒 古人不敢 輕發汗者 正由 麻黃 能開腠理 用或不得其宜 則導泄眞氣 因以致虛 變生他證 此藥 乃平和之劑 人蔘養胃湯也 止能溫中 解表 而已 不致妄擾也(局方).”

3)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1985, pp. 72~73.

床活用面을 보면, 여러 가지 狀況에 따른 藥物 加減法에 대하여 많이 提示해 주고 있기에 參考的 價値가 있는 것이다.

『東醫臨床方劑學』에서는 人蔘養胃湯을 臨床에 活用함에 있어서 “만약 挾滯가 보이면 山查二錢 神麩·檳榔各一錢 枳實七分을 加하고, 外感이 보이면 葛根·香附各一錢 蘇葉七分을 加하며, 鬱熱이 보이면 豆豉 三~五十粒을 加하고, 熱이 甚하면 다시 山梔子 五~七分을 追加해서 治療한다고 하였다. 또 泄瀉에는 澤瀉·車前子·猪苓 部類의 藥을 加하고, 痢疾에는 神麩·枳殼·川黃連各一錢 廣木香五分 檳榔末一錢을 함께 調劑하여 服用하며, 血痢에는 桃仁을 加하고, 尿水不利에는 澤瀉와 猪苓을 加하며, 瘧疾에는 柴胡二錢 黃芩·檳榔各一錢에 草果를 倍로 늘려서 投與하고, 妊娠婦雜症에는 역시 各條目에 따라 辨證治療하되 白朮로 바꾸고 半夏를 빼야 하며, 蛔虫에는 山查肉·檳榔·使君子·花椒 部類의 藥을 加하고, 感寒發瘧에는 肉桂를 가하며, 脈無力하고 汗多에는 乾薑과 附子를 加하고, 脈洪有力하고 熱多에는 黃芩과 柴胡를 加한다.”고 仔細하고 具體的으로 提示하였다.

또한 人蔘養胃湯의 方義에 관하여 “本方은 二陳湯의 分量을 半減하고 人蔘 茯苓 草果 烏梅를 加한 方劑로 脾胃不和에 依한 諸症을 治療하는 通用方이다. 二陳보다는 剛燥하지 않고 平胃보다는 藥力이 強化된 것으로 方中の 蒼朮 厚朴 藿香은 發散하고 半夏 茯苓 陳皮는 祛痰하나 人蔘이 補精하니 消剋하는 藥이 있어도 不致過劑로 製方の 妙가 있다. 本方은 外感風寒 內傷生冷 挾食停痰 山嵐瘴疫 食癆 孕婦雜症에 加減運用한다.”고 풀이하기도 하였다.

### 12. 『方藥合編解說』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4)</sup>

『方藥合編解說』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이것이 平胃散의 變方이라고 看做하면서 臨床治療時에 주로 外感風寒하고 內傷生冷하여 消化不良, 停痰함과 嵐瘴瘟疫이나, 或은 飲食으로 傷脾하고

4)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8, p. 220.



痲瘡이 發生한 경우에 人蔘養胃湯 즉 平胃散에 藿香·半夏·人蔘·茯苓·生薑·草果·烏梅를 加하여 使用한다고 하였다.

### 13. 『東醫方劑와 處方解說』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1)</sup>

『東醫方劑와 處方解說』에서는 人蔘養胃湯에 관하여 이는 回生散, 二陳湯, 平胃散의 變方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傷寒陰證, 及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을 治療하는데 使用하는 處方으로서 藥物의 構成과 服用方法은 “蒼朮一錢半, 陳皮·厚朴·半夏製各一錢二分半, 茯苓·藿香各一錢, 人蔘·草果·甘草炙各五分, 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烏梅一箇, 水煎服.”하는 것이라고 論述하였다. 이는 『醫學入門』에서 由來되는 內容에 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東醫方劑와 處方解說』에서는 또 이와 같이 回生散, 二陳湯, 平胃散에서 變化되어 온 處方인 人蔘養胃湯의 方義에 관하여 “本方은 外感內傷을 治하는 基本方으로 傷寒陰證에 活用한다. 蒼朮, 陳皮, 厚朴, 甘草, 半夏, 白茯苓은 平陳湯으로 平胃散에 二陳湯을 合方하므로써 消食積痰飲하고 健脾燥濕하여 脾胃의 運化作用을 強化시켜주고 蒼朮, 藿香과 草果는 外感을 發散시켜 瘧證을 治해준다. 烏梅는 收斂作用이 있어 과도한 津液의 消耗를 막아준다. 人蔘, 蒼朮, 白茯苓, 甘草는 四君之劑로 扶正祛邪하는 作用이 있다. 따라서 本方은 二陳湯보다는 燥하지 않고 平胃散보다는 藥力이 強化된 方劑이다.”라고 統括하여 풀이하고 있다.

### 14. 『中醫方劑大辭典』에서 論한 人蔘養胃湯<sup>2)</sup>

『中醫方劑大辭典』에서는 여러 가지 醫書에 나타난 人蔘養胃湯의 藥物構成과 主治作用 그리고

藥物加減法 등에 대하여 簡略하게 紹介해 주고 있다.

『中醫方劑大辭典』에 轉載된 內容을 크게 살펴 보면, 『陣素庵婦科補解』에서는 人蔘養胃湯이 “人蔘 茯苓 白朮 甘草 陳皮 半夏 當歸 蒼朮 川朴 柴胡 黃芩 前胡 白芷 牡蠣 烏梅 生薑”등 藥物로 構成되어 “産後瘧疾”을 主治하는 效能이 있다고 하였고, 『松崖醫徑·卷下』에서는 “蒼朮 厚朴 陳皮(去白) 甘草(炙) 人蔘 白茯苓 半夏(去皮) 草果 藿香 砂仁 香附子 生薑三片 烏梅一個”등으로 構成되어 “內傷飲食, 心腹脹痛, 吐瀉, 瘧疾初起及瘧後調理”하는데 주로 使用한다고 하였으며, “若瘧瘧寒多者는 加炮附子한다.”고 加減法을 提示하기도 하였다.

또 『攝生衆妙方·卷四』에서는 人蔘養胃湯이 “人蔘(去蘆)·白朮(酒炒)各一錢五分, 厚朴(薑汁制)六分, 陳皮(去白)一錢五分, 蒼朮(米泔浸, 炒)二錢, 茯苓(去皮)·半夏(湯泡七次) 草果(去殼)各一錢, 藿香八分, 甘草八分, 黃芩(酒炒)·柴胡(去蘆)各六分, 生薑三片, 紅棗一枚”등으로 構成되어 “暑瘧, 風瘧, 瘧疾, 食瘧, 瘧瘧”를 主治하는 效能이 있다고 하였고, 『痘疹金鏡錄·卷上』에서는 “蒼朮 厚朴 陳皮 紫草 茯苓 半夏 芍藥 人蔘 白朮 生薑 黃米”등으로 構成되어 “小兒脾胃不和, 或吐或膨, 時泄瀉, 或煩或渴, 飲食少進者”를 主治하는 效能이 있다고 하였으며, “嘔吐하면 加藿香·木香하고 瀉하면 加肉果·訶子하며 腹脹하며 加枳殼·大腹皮하고 不思飲食하면 加益智한다.”고 加減法을 提示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回春·卷三』에서는 人蔘養胃湯이 “人蔘 茯苓(去皮) 陳皮 半夏(薑汁炒) 厚朴(薑汁炒) 蒼朮(米泔浸) 藿香 當歸 川芎 草果(去殼)各八分 甘草三分 烏梅 一個 生薑三片 大棗一枚”등으로 構成되어 “暴瘧初起”를 主治하는 效能이 있는데, 먼저 二帖을 服用한 後에는 다시 人蔘截瘧飲加減으로 處方을 바꾸어 治療한다고 하였다. 加減法에 대해서도 比較的 仔細하게 言及하였는데, “寒多, 加肉桂; 熱多, 加柴胡; 汗多, 去蒼朮·川芎, 加白朮·黃耆; 飽悶, 加青皮·砂仁, 去人蔘; 渴, 加麥門冬·知母, 去半夏; 瀉, 加炒白朮·芍藥; 瀉不止, 加肉豆蔻, 去厚朴·草果; 嘔噦, 加白朮·山藥·炒砂仁·

1)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서울, 醫聖堂, 2002, p. 119, 427, 464, 479.  
2) 南京中醫學院,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 467~469.

炒米仁, 去草果·厚朴·蒼朮; 痰多, 加貝母·竹瀝, 去半夏·草果; 內熱性, 加炒黃芩, 去半夏; 長夏暑熱盛, 加香薷·扁豆, 去半夏·藿香.”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胎産秘書·卷下』에서는 人蔘養胃湯이 “人蔘 當歸 白朮各二錢 茯苓 半夏各八分 草果 甘草 青皮 藿香各四分 烏梅二枚” 등으로 構成되어 “産後一月에 其人素虛하여 걸리게 된 瘧疾”을 主治하는 效能이 있다고 하였고, 또 『醫略六書·卷二十八』에서는 “人蔘錢半 白朮二錢(生) 草果一錢(炒) 條芩錢半 炙草5分 茯苓三錢 陳皮錢半 茵陳三錢” 등으로 構成되어 “妊娠黃腫, 脈細弱者.”를 主治하는 效能이 있다고 主張하였다.

### III. 總括

이상과 같이 『太平惠民和劑局方』을 出發點으로 하여 십여 種의 醫書에 나타난 人蔘養胃湯의 藥物構成과 主治病證 그리고 臨床活用 등 內容들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總括할 수가 있다.

#### 1. 人蔘養胃湯의 處方的 構成藥物에 대한 總括

總括적으로 보면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人蔘養胃湯의 藥物構成이 確定된 이래로 以後의 『醫學入門』·『萬病回春』·『赤水玄珠』·『證治準繩』·『沈氏尊生方』·『醫方集解』·『東醫寶鑑』·『方藥合編』·『東醫臨床方劑學』등 主要 醫書들에서는 기본상 『太平惠民和劑局方』의 內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橘紅을 陳皮로 交替한 것과 大棗를 追加로 加味한 것이 그 變化의 主된 部分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타의 일부 醫書들에 나타난 人蔘養胃湯의 藥物構成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매우 큰 差異를 보이기도 하여 비록 方劑名은 同一하나 本來의 人蔘養胃湯으로 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아래에 表로써 藥物構成面의 全般的인 狀況을 整理하도록 하겠다. (表1 參照)

表 1: 各種 醫書에 나타난 人蔘養胃湯의 構成藥物 比較表

	蒼朮	厚朴	半夏	茯苓	藿香	人蔘	草果	橘紅	陳皮	炙甘草	生薑	烏梅	大棗	기 타
和劑局方	○	○	○	○	○	○	○	○		○	○	○		
醫學入門	○	○	○	○	○	○	○		○	○	○	○	○	
普濟方					○	○				○			○	北五味子, 黃耆, 白扁豆, 遠志, 當歸, 川芎, 生地黄, 益智仁, 石蓮肉, 麥門冬
萬病回春	○	○	○	○	○	○	○		○	○	○	○	○	當歸, 川芎
赤水玄珠	○	○	○	○	○	○	○		○	○	○	○		
王肯堂醫學全書	○	○	○	○	○	○	○	○		○	○	○		
王機義	○	○	○	○	○	○	○		○	○	○	○	○	
沈氏尊生書	○	○	○	○	○	○	○		○	○	○	○	○	
醫方集解	○	○	○	○	○	○	○		○	○	○	○	○	
東醫寶鑑	○	○	○	○	○	○	○		○	○	○	○	○	
陣素婦科補解		○		○		○			○	○	○	○		白朮, 牡蠣, 前胡, 柴胡, 黃芩, 當歸, 白芷, 川朴
攝生妙方	○	○	○	○	○	○	○		○	○	○		○	白朮, 柴胡, 黃芩
痘疹金鏡錄	○	○	○	○		○			○		○			芍藥, 紫草, 黃米
準繩科幼科				○		○			○	○				白朮, 神曲, 梔子, 黃芩
醫略六書						○	○		○	○				白朮, 條芩, 茵陳
胎産秘書			○	○	○	○	○			○		○		當歸, 白朮, 青皮
松崖醫徑	○	○	○	○	○	○	○		○	○	○	○		砂仁, 香附子
東醫臨床方劑學	○	○	○	○	○	○	○		○	○	○	○	○	
東方醫劑處方解	○	○	○	○	○	○	○		○	○	○	○	○	
方藥合編解說	○	○	○	○	○	○	○		○	○	○	○	○	

#### 2. 人蔘養胃湯의 主治病證에 대한 總括

십여 種의 醫書 중에서 主要한 醫書들에서는 대

개 『太平惠民和劑局方』에 나타난 “治外感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目昏疼 肢體拘急 不問風寒二證 及內外之殊”이라는 人蔘養胃湯의 主治病證을 기본상 따르고 있는 편인데, 단지 일부 醫書들에서는 이와 다른 病證에 應用함으로써 『和劑局方』에서 言及하지 않은 主治病證을 提示한 경우도 있다. 아래에 表2로 差異가 보이는 각 醫書의 內容들을 要約하기로 하겠다. (表2 參照)

表 2: 일부 醫書에 나타난 『和劑局方』과 다른 人蔘養胃湯의 主治病證

醫書名	人蔘養胃湯의 臨床主治病證
和劑局方	治外感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目昏疼 肢體拘急 不問風寒二證 及內外之殊
普濟方	治虛損血衰 手足軟 行步無力 口苦舌乾 并宜服之
萬病回春	治寒瘧初起 服二帖後 用人蔘截瘧飲 加減截之
赤水玄珠	治飲食傷脾及寒多熱少者 胸膈痞悶 不思飲食
玉機微義	治外感風寒 內傷生冷 四時瘟疫 或飲食傷脾 發爲瘧疾
陣素庵婦科補解	產後瘧疾
松崖醫徑	內傷飲食 心腹脹痛 吐瀉 瘧疾初起 及瘧後調理
攝生衆妙方	暑瘧 風瘧 瘧疾 食瘧 瘧瘧
痘疹金鏡錄	小兒脾胃不和 或吐或膨 時泄瀉 或煩或渴 飲食少進者
證治準繩·幼科	脾虛不能食
胎產秘書	產後一月 其人素虛而患瘧
醫略六書	妊娠黃腫 脈細弱者

### 3. 人蔘養胃湯의 服用方法에 대한 總括

십여 種의 醫書에서 提示한 人蔘養胃湯의 服用方法을 簡略하게 總括하면 다음과 같다.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人蔘養胃湯의 服用方法에 관하여 最初로 “半夏湯洗七次 厚朴去粗皮 薑汁炒 蒼朮米泔浸一宿, 洗切, 炒 各一兩 橘紅七錢半 藿香

葉洗去土 草果去皮膜 茯苓去黑皮 人蔘去蘆 各半兩 炙甘草二錢半. 右爲咬咀. 每服四錢, 水一盞半, 薑七片, 烏梅一个, 煎至六分, 去滓, 熱服之.”한다고 確定한 바가 있다. 즉 處方 中の 藥物을 함께 모아 갈아서 매번 服用時에 四錢씩 取하여 生薑과 烏梅를 넣고 끓여 찌꺼기를 거르고 熱服한다는 것이다.

以後의 醫書들에서는 일부만 『和劑局方』의 服用方法(處方藥物을 한데 咬咀하여 服用 時마다 一定量을 取하여 湯煎함)을 따르고 있고, 나머지는 處方을 그냥 水煎服한다고만 하였다.

『和劑局方』의 服用方法和 같거나 類似한 醫書로는 『普濟方』이 있는데, 具體的으로는 “人蔘三錢, 茯苓去皮四錢, 北五味子五錢, 黃耆三錢, 白扁豆三錢, 遠志 三錢, 石蓮肉去皮五錢, 生地黄五錢, 益智仁三錢, 川當歸三錢半, 川芎二錢半, 麥門冬 去心三錢, 甘草二錢, 大棗六枚. 右爲剉, 分作六服, 每服用水二鍾, 大棗一枚, 煎至八分, 去滓, 食前服, 滓再煎服, 無忌.”<sup>1)</sup>한다고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이 藥物의 服用方法은 비슷하지만 『普濟方』에 나오는 人蔘養胃湯은 方劑名만 같을 뿐 그 主治病證과 處方構成은 『和劑局方』과 너무 差異가 커서 本來 意味의 人蔘養胃湯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해야 하겠다.

그리고 『證治準繩·傷寒』에서는 人蔘養胃湯의 服用方法에 관하여 “半夏湯洗七次 厚朴去粗皮 薑汁炒 蒼朮米泔浸一宿 洗切 炒 各一兩, 橘紅七錢半, 藿香葉洗去土 草果去皮膜 茯苓去黑皮 人蔘去蘆 各半兩, 炙甘草二錢半. 上咬咀, 每服四錢, 水一盞半, 薑七片, 烏梅一个, 煎六分, 熱服.”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和劑局方』의 服用方法和 同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證治準繩·幼科』에서도 “白朮 陳皮 神曲 各一錢五分, 人蔘 茯苓 梔子 黃芩 各一錢, 甘草八分, 上銼散, 分爲二服, 水煎, 不拘時服.”라고 하여 『和劑局方』의 服用方法和 類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人蔘養胃湯의 臨床活用に 대한 總括

1) 朱橚·膝碩·劉醇, 『普濟方』, 서울, 醫聖堂, 1993, pp. 3377~3378.

십여 종의 醫書를 살펴본 결과 人蔘養胃湯의 臨床活用に 있어서 『東醫寶鑑』이 가장 여러 파트에 걸쳐 널리 活用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여러 醫書에서 人蔘養胃湯을 平胃散의 變方이라고 풀이하기도 하였는데, 平胃散에 대하여 『芝山形象醫案』에서는 “平胃散은 脾胃의 不和와 飲食 생각이 없는 症과 心腹의 脹痛과 嘔噦·惡心과 噯氣·吞酸과 面黃·肌瘦와 怠惰·嗜臥 그리고 自利가 많고 혹은 霍亂·五噦·八痞·膈氣·反胃 등을 다스리는 藥이다. 脾를 和하게 하고 胃를 健壯하게 하고 飲食을 잘 먹게 한다. 대개 內傷症이라는 것은 脾胃중에 宿食이 있는 故로 먹는 것을 즐기지 않는 證이니, 藥으로 그 胃氣를 平하게 하면 自然히 먹는 것을 생각한다. 또한 脾胃는 濕을 主管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눕기 좋아하는 것은 脾胃에 濕氣가 있는 까닭이니 平胃散을 쓴다. 治濕의 通用方이다.”<sup>1)</sup>이라고 하였으며, 『東醫寶鑑·濕門』에서도 治濕의 通治藥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人蔘養胃湯의 主治病證은 “治傷寒陰症, 及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으로 平胃散의 變方이지만 平胃散의 主治病證이 內傷이 거의 주된 內容인데 비해 人蔘養胃湯은 內傷과 外感의 證狀 특히 憎寒壯熱·頭痛身疼을 다스리니, 熱과 身痛을 다스리는 것이 큰 差異點이다.

人蔘養胃湯에서 平胃散을 뺀 나머지 藥物들은 共通의 脾胃를 調攝하는 效能이 있으며 痰飲을 다스리는 共通된 部分이 있다. 平胃散이 濕을 다스리는 방법에서도, 痰飲의 治法에서도 共通의 脾胃를 調攝하여 體內的 水液代謝와 中氣의 升降作用을 圓滑하게 해 주는 것을 重要하게 여긴다. 『漢醫學原論』에서는 “脾와 胃의 證候는 恒시 合併하여 나타나지만, 胃의 機能은 納穀이고 脾의 主要한 機能은 運化이므로 脾胃의 證候는 運化의 失調에 있다. 脾는 陰土에 屬해 燥를 즐기고 濕을 싫어하므로, 脾가 虛해지면 水濕이 化하지 않고, 濕이 盛하면 脾土는 반드시 停滯한다. 胃는 燥土이며 潤을 즐기고 燥를 忌하는 本性이 있다.”<sup>2)</sup>고 脾胃의 生理的 特徵을 說明하였다. 몸

에 濕이 貯滯되었는지 여부는 얼굴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東醫寶鑑·濕門』에 “面色浮澤 是爲中濕.”이라고 나와 있다. 脾胃의 太過·不及으로 人體의 燥濕이 생기게 되는데 이 燥濕이 脾胃의 昇降作用에 다시 말해 中氣의 作用에 영향을 미쳐 寒熱溫涼의 變化가 오게 된다. 『醫易啓悟』에는 燥濕과 寒熱의 關係에 대하여 說明해 주고 있는데 本論에서 引用한 內容을 整理한다면 天氣는 燥를 主管한다. 地氣는 濕을 主管한다. 乾이 坤의 陰爻를 얻으면 離(火)가 되는데, 離火는 燥를 형성한다. 坤이 乾의 陽爻를 얻으면 坎(水)이 되는데, 坎水는 흘러 濕하게 한다. 乾坤이 變하여 坎離가 되므로 燥濕은 先天의 本體이고, 水火는 後天의 作用이며, 水火는 곧 燥濕이 變한 것이며, 燥濕 또한 寒熱로 인해 變化한 것이다. 寒이 치받으면 燥가 생기고, 熱이 녹이면 燥가 形成된다. 熱이 썩면 濕이 움직이고, 寒이 鬱結되면 濕이 凝結되는데, 이것은 寒熱이 모두 燥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天-燥-火, 地-濕-水의 變化가 있고 寒熱은 寒이 濕과 燥로도, 熱이 燥와 濕으로도 變化 할 수 있다 하였다. 또한 반대로 燥濕이 각각 寒으로도 熱로도 變化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단 燥의 變化에는 燥熱이 根本이고 寒燥는 變化한 것이며, 濕의 變化에는 寒濕이 根本이고 濕熱은 變化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內傷으로 因한 濕의 發生은 氣의 鬱結이나 陽氣不足으로 肺·胃·腎의 문제이고, 內傷으로 因한 燥의 發生은 血虛나 血의 鬱結로 肺·脾·腎의 문제라고 하였다. 人體의 氣血陰陽의 虛實로서 여러 가지 疾患이 생기나 그 끝은 燥와 濕으로 歸結되며 燥濕은 각각이 寒熱로 變化하는 關係로 燥濕의 調節이 人體의 健康을 維持하는데 關鍵이 된다. 燥濕調節은 體內的 水液代謝가 重要한 열쇠이다. 脾胃는 後天之木이자 水液代謝 및 榮衛循環의 지들이 역할을 하여 人體의 寒熱溫涼을 調節해준다. 人蔘養胃湯은 濕과 痰을 다스려 脾胃의 中氣 機能을 回復시켜준다. 그 結果 體內的 升降失調로 인한 憎寒壯熱과 頭痛身疼을 다스린다.

1) 大韓形象醫學會, 『芝山形象醫案』, 서울, 芝山出版社, 2003, p. 1617.

2) 金完熙·梁基相·洪茂昌·金吉萱 共著,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pp. 320~322.

#### IV. 結 論

人蔘養胃湯에 대하여 십여 種의 文獻들을 中心으로 考察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人蔘養胃湯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최초로 記錄이 되었고, 主治病證은 外感風寒·內傷生冷·憎寒壯熱·頭目昏疼·肢體拘急·不問風寒二證及內外之殊이며, 藥物構成은 半夏·厚朴·蒼朮各一兩, 橘紅七錢半, 藿香葉·草果·茯苓·人蔘各半兩, 炙甘草二錢半, 薑七片, 烏梅一個이다.
2. 「醫學入門」·「萬病回春」·「赤水玄珠」·「證治準繩」·「玉機微義」·「沈氏尊生方」·「醫方集解」·「東醫寶鑑」·「方藥合編」·「東醫臨床方劑學」·「松崖醫徑」등 文獻에 나타난 人蔘養胃湯의 主治病證과 藥物構成등 內容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을 根本으로 하면서 一定한 發展과 變化가 있었다.
3. 「萬病回春」·「玉機微義」·「陣素庵婦科補解」·「松崖醫徑」·「攝生衆妙方」·「胎產秘書」 등에서는 人蔘養胃湯으로 瘧疾을 主治한다고 하였고, 「證治準繩幼科」·「痘疹金鏡錄」·「赤水玄珠」에서는 內傷을 主治한다고 하여 「太平惠民和劑局方」의 主治病證보다 內容이 豊富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4. 「普濟方」·「陣素庵婦科補解」·「準繩幼科」·「醫略六書」에 나타난 人蔘養胃湯의 藥物構成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심한 差異를 보여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緣由되는 人蔘養胃湯과는 同一한 系列의 處方으로 보기가 어렵다.
5. 여러 文獻의 內容을 綜合해보면, 人蔘養胃湯은 內傷(食傷)으로 外感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處方이며, 傷寒陰證 및 傷寒과 類似한 證狀을 治療할 수 있으나, 溫中解表하는 作用이 있어 人蔘敗毒散이나 蔘蘇飲에서의 發汗의

治法과는 差를 알 수가 있다.

6. 人蔘養胃湯은 臨床적으로 現代人の 食生活의 變化와 飲食不節로 인한 內濕과 痰飲의 病證에 多用할 수가 있으며, 外感傷寒에 抗生劑등을 장기간 使用한 경우에 效果가 있는 處方이라고 할 수가 있다.

#### 參 考 文 獻

1. 洪元植 尹暢烈, 新編中國醫學史, 大田, 周珉出版社, 2004.
2. 劉景源 點校,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3. 李挺, 新校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成文化社, 1994.
4. 朱橚·膝碩·劉醇, 普濟方, 서울, 醫聖堂, 1993.
5. 襲廷賢, 增補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2.
6. 孫一奎,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7. 王肯堂, 證治準繩 第3卷,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8. 王肯堂, 證治準繩 第5卷,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9. 劉純, 玉機微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0. 田思勝 主編, 沈氏尊生書, 北京, 中國中醫學出版社, 1999.
11. 王昂 原著, 蔡仁植·孟華燮 共譯,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1992.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3.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14. 尹吉榮,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1985.
15.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8.
16.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서울, 醫聖堂, 2002.
17. 南京中醫學院,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18. 金完熙,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2.
19. 郭東烈, 醫易啓悟, 서울, 成輔社, 1997.
20. 大韓形象學會, 芝山形象醫案, 서울, 芝山出版

社, 2003.

2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所, 1993.
2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研究所, 1995.
23. 洪元植 尹暢烈, 新編中國醫學史, 大田, 周珉出版社, 2004.